

2019년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버럭 05월호



발행처: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행인: 정종남 편집: 편집위원 발행일: 2019년 05월 31일

홈페이지: <http://www.kbcil.co.kr> 전화: 908-7776 팩스: 0303-0799-1758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119호

상반기 집단동료상담 - 쌍방의 마음



▲ 억압과 차별을 받아온 나날을 이야기하는 참여자들



▲ 현재의 자신의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

이번 상반기 집단동료상담은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의외로 올바른 용어 및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 놀랐다' 하였습니다. 주상담가와 보조상담가로는 강북센터에서 외부동료상담가로 활동 중이신 조희숙 동료상담가와 최순덕 동료상담가를 섭외하여 참여자들의 아픔을 좀 더 공감해 주고, 참여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방법들을 제시해주며, 상반기 집단동료상담 진행 동안 참여자들과 함께 호흡하였습니다.

자신이 살아간 과거와 살아가고 있는 현재, 그리고 살아가고 싶은 미래를 참여자들끼리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장애를 어떻게 입게 되었는지, 자신의 삶에 장애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각자 이야기를 나눠 보는 시간을 가졌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동료상담의 의의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 참여자는 자신이 과거에 가족들로부터 받은 억압들을 얘기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였으며, 다른 참가자들이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는 등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다시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동기부여를 불어넣어주는 참여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상반기 집단동료상담 '쌍방의 마음'은 교육이 아닌 말 그대로 상담형식으로 이루어져 참여자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안○○씨 2차 개별자립생활기술훈련(뮤지컬 관람)



▲ 안○○씨 2차 개별 ILP 뮤지컬 관람 진행



▲ 스스로 티켓을 발권해 보는 안○○씨

4월 23일(화) 안○○씨 2차 개별자립생활기술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2회 차 프로그램은 안○○씨가 지킬앤하이드를 보고 싶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뮤지컬 관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체험자 안○○씨는 평소 뮤지컬 관람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뮤지컬은 본 적이 많이 없다며 이번에는 자신이 보고 싶은 뮤지컬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에 따라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지킬앤하이드를 보기로 결정했으며 낮 시간대의 공연을 검색하였습니다. 하지만 워낙 인기가 많은 뮤지컬이라 그런지 낮 시간대의 공연은 다 매진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저녁 시간대의 공연을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연 한 시간 전에 도착하여 안○○씨는 공연장을 구경하고 기념사진도 찍은 후 티켓 창구에서 스스로 티켓을 발권을 하여 극장으로 입장하였습니다. 불이 일제히 꺼지며 화려한 모습을 한 배우들이 등장하여 극을 시작하였고 웅장한 노래와 무대 효과가 한 대 어우러져 안○○씨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안○○씨는 극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극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흥미롭게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뮤지컬이 완전히 끝난 후 안○○씨에게 재미있었냐고 물어보자 정말 재미있었다는 대답을 하였으며 다음에도 또 보고 싶다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습니다. 개별 ILP를 통하여 안○○씨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욕구를 충족시켜 자립생활에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담당자로서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프로그램을 끝마쳤습니다.

신○○씨 2차, 3차 개별자립생활기술훈련



▲ 미용실에 방문하여 원하는 헤어스타일로 바뀐 모습



▲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여 먹는 모습

파마를 하고 싶다는 체험자 신○○씨의 의견을 반영하여 5월 3일(금) 2차 개별ILP - 미용실에 방문하여 원하는 헤어스타일로 바꿔보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미아 역에 위치한 ○○헤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두피클리닉이 필요하다는 미용실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두피클리닉 진행 후 신○○씨가 사전에 찾아본 사진을 참고하여 파마의 컬을 결정해보았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변화된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보며 밝은 미소를 띠었고 직접 결제까지 해보았습니다.

5월 8일(수) 3차 개별ILP -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여 먹어보기를 진행해보았습니다. 체험자 신○○씨가 평소 접해보지 못한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여 강북센터 근처에 있는 쿠우쿠우에서 외식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매장에 들어간 신○○씨는 다양한 음식을 보며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쿠우쿠우 직원에게 냉모밀이 먹고 싶다는 자신의 욕구를 직접 이야기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도가 높았던 모습에서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니 개별ILP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4차 개별ILP는 네일아트를 해보고 싶다는 참여자 신○○씨의 의견을 반영하여 손톱·발톱 깔끔하게 정리하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차 · 3차 장애인식캠페인 ‘공감과 연대로 함께하는 사회’



▲ 2차 장애인식캠페인 ‘공감과 연대로 함께하는 사회’



▲ 3차 장애인식캠페인 ‘공감과 연대로 함께하는 사회’

4월 18일(목) 권익옹호 사업의 일환으로 2차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공감과 연대로 함께하는 사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차 캠페인은 강북구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4.19혁명 국민문화제에 참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강북구를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와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4.19혁명과 관련한 수어배우기, 장애유형과 관련한 에티켓 알리기, 건강정보알리미, 응원스티커 붙이기 등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기고 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긍정적으로 장애인식에 대한 파급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5월 9일(목) 권익옹호 사업의 일환으로 3차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공감과 연대로 함께하는 사회’가 진행되었습니다. 3차 캠페인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아동기인 초등학생들이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양성하여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강북구 내에 위치한 서울수송초등학교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웹툰 및 0·X 퀴즈, 장애유형에 맞는 보장구 맞추기를 준비하여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흥○○ 활동가는 ‘아이들이 꾸밈없는 모습으로 장애인에 대해 편견 없이 퀴즈를 푸는 모습이 새로웠고, 의외로 올바른 용어 및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 놀랐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강북센터는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처럼 장애에 대해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심화과정 ‘너의 보석들이 되어 줄게’



▲ 인간본질과 감정해방 강의모습



▲ 장애인인권의 현실 강의 모습

5월 16일(목)부터 5월 18일(토)까지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심화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5월 16일(목) 강북센터 직원들은 대방동 여성플라자에 일찍 도착하여 다과와 도시락을 주문하며 동료상담 양성교육 심화과정 준비를 하였습니다. 집합시간인 2시가 다가오자 참가자 분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하였고, 점심 도시락과 숙소 방 키를 나눠드렸으며, 참여자들은 강의시작 시간인 4시까지 자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심화과정은 강의를 세 분야로 나누어 주강사와 보조강사를 각각 3명씩 섭외하고, 강의방법과 강의내용을 좀 더 다양화된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여 기초과정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날 16:00~21:00까지 주강사 서보민(함께가자도봉CIL 실장)와 보조강사 오재준 동료상담가를 섭외하여 인간본질과 감정해방, 의사소통 종류 및 방법 등 동료상담에 기초가 되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방법 등을 진행하였고, 동료상담가들이 상담 진행 시 내담자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이론과 실습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날 10:00~15:00까지 주강사 오병철(동서울CIL 소장)과 보조강사 우희경(강북CIL 외부동료상담가)을 섭외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장애인인권의 현실, 시각장애인 에티켓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동료상담 방법 등을 진행하여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익혀 동료상담가로서의 사람에 대한 존경심과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과 동료상담 시 배려해야 할 점 등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심화과정' 너의 보석돌이 되어 줄게'



▲ 역할극 진행 모습



▲ 심화과정 수료식 단체사진

을 주강사인 시각장애인분이 실감 넘치는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날 15:00~20:00까지 주강사 조희숙(강북CIL 외부동료상담가)와 보조강사 최순덕(강북CIL 외부동료상담가)을 섭외하여 역할극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가족과 직장에서 받은 차별과 억압이란 주제로 장애유형이 다른 참여자들을 3명씩 그룹으로 나누어 차별 받는 입장에서의 역할극과 '만약 나였다면'이란 역할극을 발표하여 참여자들이 내담자 입장에서 공감과 지지와 정보제공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실천에서의 동료상담 진행과정을 몸으로 익힐 수 있게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사 분들이 주제에 따라 바뀌어 좀 더 세분화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으며, 기초·심화과정에 모인 사람들과 자조모임을 만들어 계속 교류하고 싶다는 참여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5월 18일(토) 2박 3일의 마지막 날 수료식 때 선서식을 추가하여 참가자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동료상담가보다 더 훌륭한 동료상담가가 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 참여자들로 하여금 동료상담에 대한 책임감과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켰습니다. 이번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심화과정은 다른 어느 때보다 더욱 새롭고 뜻 깊은 교육이 된 것 같아 동료상담 담당자로서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8월로 계획되어 있는 보수교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4차 사전 회의 남산서울타워 방문 프로그램



▲ 4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사전 회의 사진



▲ 4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남산서울타워 앞 단체사진

5월 15일(수)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 ‘어울림’ 4차 사전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사전 회의에 따라 5월 22일(수) 남산 서울타워를 방문하였습니다.

5월 15일(수)에 열린 사전 회의는 송○○씨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4차 자조모임 사전 회의는 ‘4차 자조모임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와 ‘4차 자조모임 후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라는 안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남산에 가보고 싶다는 의견과 국수가 먹고 싶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4차 자조모임은 남산서울타워에 방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월 22일(수), 참여자들과 스태프들 모두 남산서울타워로 가는 동안 참여자들은 기대가 된다는 반응과 무섭겠다는 반응으로 기대 반 설렘 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안전하게 남산서울타워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케이블카를 탑승하기 전 점심식사를 하였고, 케이블카를 탑승 후 참여자들의 의견에 따라 VR과 3D체험을 해보기도 하였으며, 미리 준비해 온 용돈으로 오락실 체험을 하며 참여자들의 장난 끼 넘치고 밝게 웃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4차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은 오랜만에 모든 참여자가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번 4차 자조 모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자립생활주택 다형 엄○○씨 2차 단기체험



▲ 엄○○씨 슬라임 체험관 요리실습 진행모습

4월 22일(월) ~ 4월 24일(수) 엄○○씨 자립생활주택 2차 단기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립생활주택은 생활원에서 나와 자립 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하는 곳으로써, 예비입주자가 혼자 생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고민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것이 단기체험입니다. 평소 요리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예비 입주자 엄○○씨는 요리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엄○○씨는 손을 조심히 하며 칼질을 하고, 고기를 볶아 맛있는 제육볶음을 완성하였으며, 완성 후 시식을 하고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2일차에는 슬라임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말랑말랑한 질감의 슬라임을 처음 만져본 예비입주자는 처음에는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천천히 슬라임을 주무르며 적응하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파츠와 펄을 직접 선택하여 넣고 슬라임 만들기를 해보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켰습니다.

예비입주자 엄○○씨가 자립 생활에 충분히 적응을 했을 것으로 예상되어 6월 3일에 다형 주택으로 입주 예정입니다.

자립생활주택 다형 강○○씨 외식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 4월 3일 생일을 맞은 입주자 신○○씨가 해맑게 웃는 모습

자립생활주택 다형 입주자 강○○씨와 4월 17일(수) 문화 체험과 4월 27일(토) 외식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4월 17일(수) 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전시회 관람하는 것을 원하던 입주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홍대에 트릭아이뮤지엄을 방문하였습니다. 트릭아트란 눈의 착시 현상을 이용하여 만든 예술 작품으로 평면이지만 시각 효과로 인하여 튀어 나올듯한 그림들을 보며 입주자는 즐거워하였습니다.

트릭아트 전시회 한 편에 아이스랜드 안에는 온통 얼음으로 만들어진 작품들로 채워져 있었고, 온 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추웠지만 맛있는 작품들을 감상하기 위하여 추위와 싸우며 사진을 찍는 모습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4월 27일(토) 외식체험 프로그램으로는 평소 한식을 좋아하는 입주자를 위해 다양한 한식을 접할 수 있는 자연별곡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입장하기 전부터 미소를 지으며 신이 난 모습을 보이셨고, 입장을 한 뒤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골라 담아 맛있게 먹은 뒤 다 먹은 접시를 스스로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입주 후 처음으로 하는 외식 체험을 하였는데 어떠했냐고 물어보니 삼겹살이 제일 맛있었다고 말씀하시어 담당자로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월 중에 입주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두 번째 외식문화체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가형 홍대 트릭아이 뮤지엄 체험 및 외식문화체험



▲ 홍대 트릭아이 뮤지엄 체험 진행 모습

5월 3일(금)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가형은 복지재단 티켓 나눔 행사로 홍대 트릭아이 체험 및 주택 외식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트릭아이 뮤지엄은 그림을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착시를 일으켜 사진을 재미나고 신기하게 찍는 공간을 말합니다. 티켓 나눔 덕에 문화체험과 외식문화체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좋았으며, 입주자분들도 색다른 경험과 맛있는 점심도 기분 좋게 드시고 귀가를 하신 것 같아 담당 코디네이터로서 좋은 시간 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나눔 행사는 입주자분들에게 있어 좋은 문화체험의 기회와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종종 이런 티켓 나눔 행사가 생기면 좋을 것 같다 느꼈습니다, 이러한 기회로 입주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며, 문화체험과 외식체험을 접목하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눔 행사가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며 이날에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가형 요리실습(라볶이, 김치전, 소고기주먹밥)



▲ 라볶이, 김치전, 소고기 주먹밥 완성 모습

5월 8일(수) 가형주택 요리실습 라볶이, 김치전, 소고기 주먹밥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요리실습은 입주자분들이 각각 원하는 메뉴를 정하여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에 자신이 만들고 싶은 음식을 정하고, 요리실습 당일 조리과정에 대해 담당 코디네이터와 활동지원사 선생님에게 레시피와 만드는 과정을 들으며 요리실습을 시작하였습니다. 입주자분들은 조리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도움을 담당 코디네이터와 활동지원사 선생님에게 받았지만, 칼질을 포함한 모든 요리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주자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과정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입주자분들은 느리더라도 난생 처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았고, 입주자분들에 맞추어 천천히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본인들이 직접 만든 요리를 서로서로 시식해 보며 입주자분들은 '지금까지 만든 요리들 중에 가장 맛있어요.' 라는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담당 코디네이터로서 힘은 들었지만 어느 때 보다 뿌듯했었던 요리실습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달의 정보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제/도/안/내**

2019년 5월 7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운영

신청대상 > 통합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자
이용구간 > 고속도로 전구간(민자 고속도로 포함)
* 일반차로 이용한정, 하이패스 이용불가
이용기간 > 임시감면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 재발급된 통합복지카드 수령 시 사용중단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임시감면증 발급은
주민센터·지방보훈청
(보훈지청)을 방문해서 신청!



▲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제도안 내 팸플릿. ©국토교통부

‘장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 증 도입

국토교통부가 7일부터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한국도로공사, 18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 함께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임시감면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가 통합복지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 대체 증명수단이 없어, 통합복지카드를 재발급하는 기간(약 2~3주) 동안 통행료 감면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시감면증을 발급받은 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제시함으로써 종전과 같이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시감면증 발급을 위해 장애인은 거주지 주민센터,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 후 신청해야 하고, 신청 즉시 발급

된다. 임시감면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재발급된 통합복지카드 수령 시 사용이 중단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본인 확인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고속도로 일반 차로(현금 차로)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부 장영수 도로국장은 “임시감면증 도입을 통해 연간 3만 6천 명이 총 5억 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기사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90507090401417507>

이달의 정보

장애등급제 폐지 후 특별교통수단 확대

국토교통부가 오는 7월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비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기시간 증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 제도개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및 장애인 단체 설명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 기존 이용 대상자 포함, 약 1.3배 증가

먼저 개정안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정했다. 보행상 장애 여부의 판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정도 판정기준(개정 예정)”에 따르도록 하고, 기존 이용대상자(1,2급 장애인)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대상자는 종전대로 이용대상자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기존보다 약 1.3배 늘어날 전망이다.

■ 법정 운행대수 “150명당 1대”, 4600여대로 증가

법정 운행대수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150명당 1대”로 개정한다.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전국의 법정 운행대수는 현재보다 약 1400여대가 추가되어 총 4600여대로 증가하게 되며, 이를 통해 차량이용자 증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부족과 대기시간 증가 등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본다. 국토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편을 통한 보급 확대로 휠체어 이용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기회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을 포함한 이동편의시설 등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도 더불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7일부터 6월16일까지(40일간)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019년 05월 회비납부 명단

김낙현	김석현	김숙이	김은미	김은순	김재환	김지연
박동열	박민숙	박지훈	배소영	손연숙	안해영	오재준
윤동현	윤두선	이동현	장민정	전난희	정종남	정주영
	정진경	주영경	최미경	최윤숙	최전균	

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후원안내

후원계좌 : 국민은행 822401-04-025866

예금주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의 : 02-908-7776

CMS 신청하실 분은 전화주세요~

※ 후원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북센터 프로그램 모집 · 홍보 합니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모집	
강의주제	2강 탈 시설과 인권
강 사	조한진(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 시	2019년 6월 04일 (화요일) 14:00 ~ 17:00
장 소	여의도 이룸센터 소교육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2층)
대 상	장애 인권에 관심이 있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참가비용	무료
신청서류	신청서, 복지카드사본(앞·뒷면)

집단지립생활기술훈련 '스포츠 활동'	
일 시	2019년 6월 5일(수) 14:00 ~ 17:00
장 소	수유역 인근 볼링장
모집대상	- 서울지역 장애인 - 강북센터 프로그램 신규참여자(우선순위)
모집인원	10명 (장애인 5명, 보조인 5명)
신청서류	신청서, 복지카드사본(앞·뒷면)
신청기간	2019년 6월 03일(월) 오후 5시까지

프로그램 신청방법

강북센터 홈페이지 <http://kbcil.co.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kbcil@daum.net 및 사무실
(수유역 가든타워 1119호) 방문접수

기타문의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2-908-7776 ✉ kbcil@daum.net

※ 위 일정은 센터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